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72 회

제 2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 오후 3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면

(15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대전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청권 최초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한 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대회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5시 14분)

○위원장 김진오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이용기 부위원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이용기입니다.

지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3년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대전시 준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등 체육시설 인프라가 적기에 건립되도록 사업현장 방문 등 지속적으로 진행현황을 점검할 것이며, 다양한 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한 충청의 브랜드 이미지 및 홍보전략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유치 충청권 4개 시·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오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이용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진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인사)

2027년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회의 경기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하는 데 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을 핵심 위주로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반갑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뵙게 되었네요.

지금 보니까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 GB 해제가 됐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현재 GB 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계획은 저희가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한 8월 중에 마치고 12월까지 GB 해제 결정 고시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토지보상금,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2월까지 GB 해제 결정 고시가 되면 내년도,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상을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본예산 편성하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보상 착수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상이 착수되면 내년 말까지는 보상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안 그래도 지금 가장 관건이, 일단 세계대학경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보상이 우리가 계획된 일정 내에 끝이 나야 공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토지보상이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2025년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할 텐데, 2025년도, 2026년도 2년에 걸쳐서 하면서, 2027년도 상반기까지지요?

그때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겠나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토지보상을 끝내고, 일단 준공은 2026년 12월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 자체가 절대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기간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공기 관리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일정대로,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저도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잘 추진하셔서 세계대학경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떤 경기를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경기가 개막식하고 축구, 수구 그리고 펜싱, 이 세 가지 종목을 우리 관내에서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개막식을 여기서 하면 폐회식은 어디서 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폐회식은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안이 다 나온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병철 위원 개막식을 했으면 폐회식도 여기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래서 사실 폐회식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운동장 조성사업이 저희보다 진도가 늦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는 어떤 경기를 한다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만요.

지금 수구하고 축구는 어느 정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축구 경기를…….

○이병철 위원 대전월드컵경기장이 있으니까 될 거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니요, 축구는 종합경기장에서, 그쪽에 축구하고 개막식 행사가 될 것이고요.

다목적체육관 쪽에서는 펜싱이 될 것이고 용운수영장에서 수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참 큰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2025년도부터 착공해서 2026년도 말까지 스포츠타운을 완성시킨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건데 그 부분을 숙제로 남겨 놔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부서에 가셔서 큰일을 맡게 됐는데,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하셔서 대전시가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체육건강국 남시덕 국장, 오늘 본 위원과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위에서 첫 질의 답변을 하게 되어서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지금 근래에 우리 대전에서, 물론 4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유치한 겁니다만 근래 대전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2011년도에 서남부 스포츠종합타운이 입안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십수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코앞에 닥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서, 제가 주창을 하는 겁니다만 3개, 수구하고 종합경기장 펜싱하고 그리고 개막식,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결정 난 건 아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결정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4개 시·도 합의가 다 끝난 겁니까, 개최 종목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최종적으로 우리 조직 연맹 FISU하고 4개 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상적으로 보면 이게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고 또 세계대학,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학생올림픽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코리아의 4개 광역지자체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대체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산발적으로 진행이 됐냐,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코리아에서 열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확률이 높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개막식은 대전에서 하고 폐막식은 세종에서 하고 또 대전에다 찢어발기듯이 용운경기장에서 수구 하나 하고 종합경기장 지어서 거기서 펜싱경기하고 또 개막식하고 축구경기 두어 개 하고.

이게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말이지요, 경기 종목이 총 몇 개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18개…….

○박종선 위원 업무과악이 왜 아직도 잘, 현안문제인데 우리 국장께서 제대로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특위에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정규 종목은 15종이고요.

○박종선 위원 15개 종목이지요, 정규 종목,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선택 종목이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종목도 재차 논의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서남부 스포츠타운이지만 1,500억 대 넘어가지요, 1,563억, 건립비용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께서 아주 실제 상황에 근접해서 큰 걱정을 해주시면서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구에서 예전에 큰 경기 한번 열린 적 알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세계육상경기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 메인스타디움 건립하는 데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5년 걸렸어요, 5년.

지금 연말까지 GB 해제 고시 나오고 그리고 중투 8월에 끝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제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 주민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국장님께서 만나보셨냐고요, 토지 소유주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상이 언제 들어가는지를, 시에서 정확하게 이걸 통보를 안 해주니까, 언제쯤 이 사업이 되겠다 통보를 안 해주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투 끝나고 GB 해제 결정 고시가 되면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공람, 과정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박종선 위원 빠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주민들은요, 거기 전부 다 하우스 같은 데 보면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다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단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커요.

그리고 벼농사 짓고.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내년도에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큰 걱정이 라고 해요, 지금.

오늘도 내가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께서도 실무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내년에 보상 들어가서 2025년 1월쯤에 삼 뜨기 시작해서 2025년, 2026년, 2027년, 2년여 동안 그 공기를 맞춰서 메인스타디움,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을지 큰 걱정이에요.

국장, 자신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은…….

○박종선 위원 자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은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누가 봐도 그건 공사기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일단 절대공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일정을 맞춰 놓은 것인데요, 아마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공기 맞추기가 사실, 예를 들어 장마철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그러면 공기가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공기가 좀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싶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대전시민들 입장에서, 관계자들이, 제가 다 여론을 듣고, 전문가 판단을 듣고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메인스타디움만 짓고, 다목적체육관만 짓고 덜렁 그 건물만, 큰 대형 시설만 두 개 만들어 놓고 행사를 치러요?

잔디도 심어야 하고 식재도 해야 하고 주변 근린시설도 정비를 해야 하고 공원답게 서남부 스포츠타운, 타운답게 주변 여건을 좀 만들어야 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해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말이지요, 이걸 안일하게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때까지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 건설과 관련한 최고 전문가들로 설계내역을 가지고서 이 공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거기에 잔디는 언제쯤 심어야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다 올라

오는지, 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2단계 지구는, 거기 주변 한번 봐봐요.

완전 폐하치장이지.

그런 것들은 더불어서 어떻게 정비를 해나갈 것인지.

국제대회 아닙니까, 대전의 얼굴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이 망신당하면 되겠습니까?

대전의 간판을 갖다가, 그것도 개막식인데.

200억 세계인들한테 대전을 알리는 성대한 개막식이 열리는 곳인데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외국 TV에서, 거기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전경, 주변을 다 찍습니다.

대전을 전체 소개를 다 해요.

지금 국장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시 입장에서 봤을 때 큰 것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게 많이 있지만 또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 게 자주 바뀌면 안 돼요, 특히 주무국장은.

제가 한번, 건의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께서 시장님께 건의도 해줘 보세요.

여기 국장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공기, 보상되는 시점 이걸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주민들,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하동 주민들.

오늘도 그분들하고 점심 먹고 대화 나누고 인터뷰하고 왔어요, 시정질문 인터뷰.

직접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진잠동 주민자치회장도 만나보시고 학하동 주민자치회장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렇게 현장을 비교해서 행정을 해줘 보십시오, 남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도 앞으로 전문가 그룹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일단 공기관리도 철저히 하고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알기 때 문에.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말이지요, 선수들을, 우리도 거기 4,007세대인가

4,700세대 공공임대주택 서남부 스포츠타운하는 데 건립계획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에다가, LH에서 짓는 거 이름이 뭐예요, 거기. 있지요, 이 모 아파트 단지.

거기에서 선수들 실어 나르잖아요, 대전으로, 셔틀버스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선수촌,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망신인 거예요.

대전에, 우리 공공임대주택 빨리 지으면 3년이면 지어요, 그거.

그런 것도 주무국장으로 이 사실을 알고 세종하고 논의도 하고, 이걸 국제적인 망신이다, 메인스타디움하고 체육시설은 개막식하는 데 다 있고 여기에 빈 아파트들 있는데, 여기에서 선수들 자고 먹고 하게 하는 것도 대전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유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수지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역할분담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회 개최에서 가장 이벤트가 될 개막식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대전 자체가 세종보다 도시 인프라가 훨씬 낮고 하니까 4개 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 부분도 논의 한번, 나중에 조직위원회에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도 메인스타디움 근처에, 선수들, 임원들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전의 공공임대, 대전에서 짓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세종에서 셔틀버스로 선수들을 실어 나르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전으로 실어 나르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불편을 끼쳐서 되겠습니까?

제 의견을 좀 감안하셔서 남 국장께서 조직위원회 가시거든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이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세종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특위 위원님들과 대전시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만약 적기에 건립이 안 된다면 2차 방안을 준비해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셨던 것이 있으신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서남부 스포츠타운 개발 자체가 일단 1차 목표고요.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후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공기 자체를 맞출 수 없으면 저희 나름대로 B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개막경기는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경기장을 복안으로 갖고 있고요.

펜싱경기 같은 것은 DCC 전시관을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DCC에서 체육경기대회를 한 번도 치르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치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인데 미리 한번 대회를 치러보는 것도, 경험을 한번 쌓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용기 위원 충북이나 충남, 세종도 더 많은 종목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수혜를 보는 도시가 대전시일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개최되는 경기 종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청주에서 더 많은 종목이 개최되고 있고, 청주는 딱 집중돼서 대전보다 더 많은 종목이 개최되는데 건립하고 나서도 저희가 더 많은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유도, 탁구, 태권도 같은 무예 종목 같은 경우는 실내스포츠, DCC에서 개최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대전에서 더 많은 종목을 개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남시덕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감사합니다.

○송인석 위원 무거운 역할을 맡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축구경기를 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시 연고로 해서 하나금융시티즌.

○송인석 위원 아니요, U대회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대전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개막식에 관람객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선수단하고 1만 5천 명 정도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3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개막식은 밤에 할 것 아니에요, 오후 시간대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선수들은 선수촌에 간다고 하지만 대전에 보면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래도 대전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지금 유성 개발권도 그렇고 중구 개발권, 동구 개발권으로 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대전을 찾았는데 숙박시설이 없으면 또 난감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최근에 호텔급이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호텔급 이하는 최근에 신축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UCLG대회도 외국인들 숙박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UCLG 인원하고 U대회 인원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의 숙박시설 거의 다 없어졌고 동구도 없어졌고요,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유성구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인원이 대전을 찾았는데, 저희가 관광인프라도 있는데 그걸 또 못 지키면 망신 아닌 망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요.

종목이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확정이 된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4개 자치단체가 같이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오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죄송합니다, FISU하고 협의를 일단 1차적으로 한 거고요, 아직 최종단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우리가 실내경기가 됐든 이런 것을 다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조금 전에 이용기 위원께서 종목이 다양화될 수 있고 혹시나 무도 종목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고 또 박종선 위원이 확정이나고 했을 때 확정이라고 하시기에 확정된 종목이면 이용기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무도 종목을 재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협의가 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맞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올해 여기 마케팅과 홍보사업비로 25억 원 책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잘 몰라서 대략 어느 정도로 어떤 사업에 25억을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 큰 덩어리만,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33억 1,500 정도 돼 있고요.

대회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쪽과 홍보비로 24억 9,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사업비가 총 24억 9,000만 원인데요.

대회 상징물, 기념물 개발하고 국내 상표등록에 2억 4,000 그리고 대회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에 18억, 전문가 초청 수익사업 워크숍에 3,000, 수익사업 전문위원회와 마케팅협의회 구성 운영에 3,000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자료유인 그리고 자료 번역 쪽에 1,000, 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3,000, 국내외 언론 및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에 1억, FISU 관련 행사활용 해외 홍보활동에 2억, 마케팅 홍보사업비 시책 업무 추진비로 5,000 정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적거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에 집행하는 비용은 기념품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5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실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마케팅을 잘하기 위한 사전과정을 빼고 실제 마케팅이나 홍보사업비에, 통상 우리가 집행비라고 말하는 비용은 지금 제가 대충 들었을 때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맞습니까, 대략 그 정도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총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중호 위원 국장님, 제가 선수도 아니고 집행 측도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대회의 성공은 마케팅과 홍보가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중호 위원 많은 관객들이 오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일 테니까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올해가 아마 25억 원 잡혀 있으면 앞으로도 이 예산 비슷하게 혹은 이것 이상으로 매해 예산을 잡아갈 계획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설계비나 나머지 비용을 생각하면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비가 실질적으로 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하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매체 홍보라든가 기념물이라든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선수나 임원진은 당연히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 거고 일반적으로 이 행사를 모르고 있거나 약간의 관심이 있었는데 홍보를 보고 올 수 있는 시민들, 그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 저희가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홍보, 마케팅 전략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마도 매체 홍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통상 공무원 조직에서 집행할 때 전통적인 언론기관, 홍보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식만 생각하시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앞서서 1억만 들이면, 1억이 아니라 10만 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래스카에 홍보할 수 있고 아랍에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언론홍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지역, 성별, 연령, 관심사, 우리가 그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홍보방법 말고 지금 우리가 아마 여태까지는, 제가 시청도 교육청도 확인해 봤을 때 그런 식의 홍보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기업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도 전통적인, 우리가 익숙한 홍보 매체에 홍보비 쉼겨주면서 광고하기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좀 더 진일보한 홍보방법으로 U대회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 관련 전략 수립이 된다면 그 부분에 이런 것을 꼭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알겠습니다.

7월 중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행정처리 자체를 조직위원회에서 꾸려갈 건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홍보 매체 같은 것도 다양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음번에 한 번 더 기대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 반갑습니다.

8쪽에 보면 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용운국제수영장하고 한밭수영장이 보수에 들어가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주화 위원** 보수기간은 어떻게, 같이 겹치지는 않겠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용운수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경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쪽이 국제경기 규격에 비해서 현재 있는 수영장 깊이를 20cm 정도 더 파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월드컵경기장 노후된 시설하고 한밭수영장, 이것도 저희가 재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하기가 힘들어서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산출비용을 다 산출했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정해서 단계별로 대회 전까지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우리가 큰 경기를 개최해야 되니까 이렇게 개보수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용운수영장과 한밭수영장은 조금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할 때 기간을 따로 두고 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한 쪽 수리할 때 다른 쪽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알겠습니다.

공사 시행할 때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진오	이용기	송인석	박주화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청가위원(1명)

김선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전문위원	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체육진흥과장	최원석